

身土不二의 企業 興國農産 土種 홍화씨
 興國農産 土種 홍화씨가 왜 좋은가?
 ◎ 전국 (080)064-1300
 ◎ 서울본부 (080)070-1300
 ● 지리산지리산 홍양은 재배의 적지
 ● 함양은 100년만의 재배를 통한
 ● 임조격 동내
 ● 재질은 연구된 품종 우수 품종 생산

“부처님 품처럼 평안한 세상위해”

화엄경 80권 금자사경 원응스님
화엄도량 조각장업

경남 함양군 마천면 추성리 지리산 자락. 가파른 산길을 허위하여 오르다 보면 키가 5m도 훨씬 넘는 우람한 사천왕상이 일렬로 나타난다. 여는 사찰처럼 천왕문에 나란히 두분씩 서 계신 것이 아니라 큰 바위에 일렬로 새겨져 있다. 사천왕들의 부릅뜬 눈과 힘찬 기상에 속세에서 풀려온 분별심과 잠긴 생각들이 다 달아나는 것만 같다. 합장삼배하고 고개를 드니 '대방광문(大方廣門)'이라 쓰여진 돌로 된 큼직한 편액이 반갑게 맞는다. 다시 한번 합장하며 돌무지개문을 넘어선다.

지리산 벽송사 서암(西庵). 온통 마애불들이 도량을 장엄하고 있다. 자연적으로 뿔은 돌산. 유난히 큰 바위가 많은 이곳에는 바위마다 불 보살상과 선종, 니반존자, 선재 등지 등이 조각되어 있다.

"이곳 지리산은 6·25때 무고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비롯 문수·보현보살상과 선재동자상을 포함한 노천마에 불과 또 다른 쪽으로 니반존자를 새긴 바위가 나타난다.

그러나 화엄도량인 서암에서 무엇보다도 소중한 정보는 국내에서 유일한 80권의 화엄경 금자사경. 원응스님이 참선하는 사이사이 감지(紺紙)에 금분으로 화엄경 80만자를 옮겨 쓴 것. 85년에 시작해 12년만인 지난해 완성했다.

현재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신라시대와 고려시대 금니. 은니 사경은 여러 장이지만 아쉬운 것은 일부만 남아 있다는 것. 따라서 원응스님의 금자사경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화엄경 전체를 사경한 금자사경이 됐다. 처음 5년동안은 먹으로 화엄경을 한자씩 한자에 사경했고 이것을 마친 후 금분을 아교에 섞어 한자 한자의 특별주문 제작한 감자에 옮겼다. "오재(五字)로 간주되는 자를 알맞이 따로 모아 팔만대장경과 신수대장경, 각 강원에서 쓰이는 경 등 여러 본을 참고로 비교 분석 수정하는 등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12년동안 글이 닳아서 없어진 붓만 30개가 넘는다. 하루 3백자씩 계속 쓰다보니 실명까지 우려될 정도로 시력이 떨어지고 말이 마비되어 중도에서 포기할 위기도 여러 차례 맞았으나 참선과 금자사경불사에 뜻을 모아준 여러 선도들의 기도와 격려로 완성이 됐다.

원응스님은 도량의 조각불사가 회향되는 내년에 화엄경 금자사경을 일반에 공개하는 전시를 거점으로 한다. 금자사경을 찬양하고 화엄도량에 온 불자들이 앞장서 "결수록" 각박해지고 메달리기는 이 세상에 연꽃이 되고 선재동자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한다.



◊(대방광문) 80권을 일일이 금분으로 사경하는데 고바 12년이 걸렸다. 원응스님은 이 금자사경을 불자들과 일반인들이 찬양할 수 있도록 전시를 갖고자 한다.

88년부터 조각불사 시작
 동서화합·남북통일 발원
 12년동안 화엄경 금자사경
 끝 닳아 못쓰게된 붓 50개

죽은 곳입니다. 그 원혼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이고독라(離苦得樂)를 기원하며 아직도 대치하고 있는 남북한의 화합과 통일을 기원하고자 불사를 시작했습니다. 요즘 더욱 심해져가는 동서 지역감정이 민심을 괴롭게 하고 있어요. 모든 이기심과 분열을 없애고 부처님의 품안처럼 평안하고 자비심으로 살자는 마음에서 발원을 했지요."

1960년 초 이곳에 왔을 때부터 유난히 많았던 거대한 바위들을 예시로 보지 않았던 원응스님(서암 주지)은 어느날 굴속에서 참선하는 중 비몽사몽간에 뒤편으로 바위면에 나타난 불 보살상들을 보게 된다.

올다. 여기에 마애불을 새기자. 조각불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지난 88년부터. 스님은 임백마다 열일이 부처님과 보살들, 그리고 그 권속들을 먹으로 그림을 그려 주고 석수 종덕회까지 하여금 조각하게 했다. 종덕도 늘 기도하며 조각에 임해 조각 하나를 마치기 전에는 결코 절 밖에 외출을 하지 않을 정도로 정성을 쏟았다고 한다. 서암의 중앙에 위치한 석굴은 돌이서기만 해도 환희심이 가득할 정도로 석굴 전체가 조각으로 장엄된 아미타세계. 아미타부처님을 중심으로 관세음·지장보살, 8대 보살, 10대 제자, 나한, 사천왕 등과 용, 연꽃 가룡비가 돌이 석굴 벽과 천장 전체를 빈틈없이 채우고 있다.

산기슭을 한참 올라가면 바위에 각각 비로자나불을

사경의 공덕 한자 한자 정성... 무념무상 경지

사경은 부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글자로 옮기며 그 뜻을 눈과 입 그리고 가슴으로 다기는 수행방법이다. 마음이 평정하지 않으면 글자는 흐트러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사경은 신관한 마음을 없애 마음을 단정히 하고 통일된 정신상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평소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무념무상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좋은 수행방법이다.

(법화경) 제4품 '법사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법화경)의 한 구절이라도 알아 지니고 읽고 되고 해설하고 베풀어주거나 이 경전 공경하기를 부처님과 같이하며... 이 사람들은 이미 십만억 부처님께 공양하였고 또 여러 부처님

계산 곳에서 큰 서원을 성취하고..." 해 사경공덕이 십만억 부처님께 공양한 것과 같은 공덕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 사경은 자신의 수행과 실천행일 뿐 아니라 불법을 널리 알리고 경전을 후세에 전하는 전법의 공덕이 있으므로 자라이타의 공덕이 함께 하는 신앙행위이다.

우리 나라에서 가장 연대기 올라가는 사경은 통일신라 경덕왕대의 '백지북서대방광불화엄경' 권 43(국보 제196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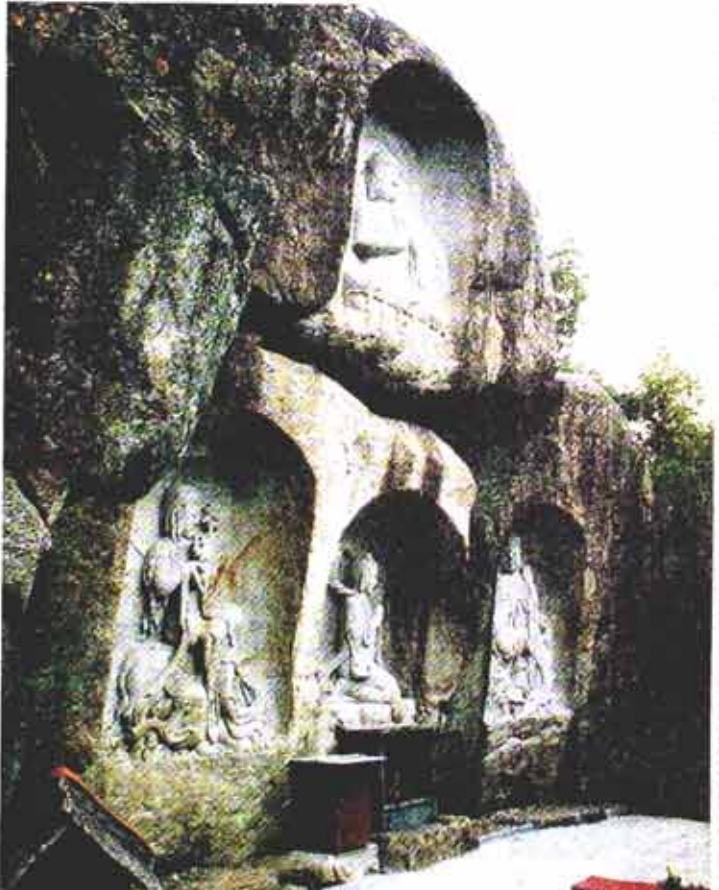
중국 명나라 무하스님(1497~1623)은 28년동안 허와 손가락의 피를 내어 금가루를 섞어 화엄경 80권을 사경했다. 이 혈사경(血法經)은 현재 구화산 지장사에 소장되어 있다.



◊서암에는 유난히 큰 바위가 많다. 원응스님은 이 바위에 불 보살상과 그 권속들을 조각으로 새겼다. 서암 들어가는 입구, 사천왕들이 바위에 일렬로 새겨져 있다.



◊ 대방광문(大方廣門) 편액. 원응스님이 직접 써 돌에 새긴 이 편액은 여기서 화엄도량임을 나타내준다.



◊ 화엄세계의 주불인 비로자나불이 위에, 아래에 문수보살과 보현보살, 선재동자 등이 조각되어 있다.



◊ 통도사 영신전 불상명 중 '비람강생상(부분)', 1775년 작.

“세상사람들을 구제할 것이다”

불화와 성화비교 33장면 17 성인의 경배

부처님과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각각 성인이 찾아와 경배를 드렸다.

부처님이 태어났을 때 히말라야 산속에서 수행하던 아시타선인이 천인으로 부처님 탄생을 보고 제자 나라카와 함께 왕궁으로 와 경배드리며 그 출중한 모습을 살펴보고는 큰 인물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서문 두가지 특징을 갖추었기에 왕위에 오르면 전세계를 지배하는 전륜성왕이 되고, 왕위를 버리고 출가수행한다면 부처님이 되어 이 세상사람들을 구제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예수님도 베들레헴의 한 시골 말구유에서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이 사실을 알고 찾아와 아기 예수에게 향금과 유황 물약을 선물하며 경배했다.

왼쪽 그림은 풍도시 영신전의 팔상도 비람강생상 중 일부로 아시타선인이 부처님의 모습을 찬양하고 예언하고 있다. 오른쪽 그림은 명림각작 '동방박사의 경배'이다. 별을 보고 찾아온 세 동방박사가 말구유의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모습이다.

학림 <예전 법화암 주지>



◊ 명림각작 '동방박사의 경배(부분)', 1470년경. 스페인 프라도미술관.